

《史記·衛將軍驃騎列傳》析論*

김 이 식**

〈目次〉

I. 들어가는 말	IV. 인물묘사
II. 열전의 배치	V. 나오는 말
III. 열전의 구성	

I. 들어가는 말

《史記》에는 다양한 인물군상이 등장한다. 정치지도자, 법조인, 사상가, 교육자, 문인, 명장, 농민, 명의, 협객, 자객, 건달, 배우, 무당, 점쟁이, 여성, 동성애자, 사업가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계층이 敍事의 대상이 되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군상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담아내면서 또 이들의 功過에 대해 褒貶을 하고 있다.¹⁾ 《사기》속에 등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 한국재단의 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18224) 이 글은 2017년도 영남중국어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 한 것임. 논문토론자인 남민수 선생님과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조언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계명대학교 강사

1) 金聖日은 〈史記褒貶義法淺談〉에서 “史記는 春秋의 大義인 貶天子, 退諸侯, 討大夫, 善善惡惡, 賢賢賤不肖의 義法을 계승, 답습하여 著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懲惡而勸善·不隱惡을 要諦로 삼은 褒貶의 精神이라고 할 수 있으며 史記가 후대에 와서 義法이 가장 精深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主된 要因 중의 하나가 바로 史記가 지니고 있는 褒貶義法일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일, 〈史記褒貶

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이천여 년 전, 아니 그 보다 더 오래전 사람들의 역사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과 흥분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아마도 《사기》가 다양한 역사 인물의 전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通古今之變) 인간의 본질을 탐구(究天人之際)하는 인간학의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기》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역사 인물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기》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아왔고 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읽히고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대상인 《史記·衛將軍驃騎列傳》은 후대 학자들의 단편적인 평가²⁾는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논문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비록 金苑이 박사논문 《史記列傳義法研究》³⁾에서 〈위장군표기열전〉을 章法學의 관점에서 도식화하여 다루고 있지만 단지 문장 분석에만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 《사기》 열전 중에서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는 열전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나아가 사마천 《사기》의 ‘一家之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사기》의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司馬遷은 〈太史公自序〉에서 衛靑과 霍去病이 “구불구불한 변방의 영토를 곧게 하고, 河南의 땅을 넓혔다. 祁連山을 공격하여 서역의 나라들과 통하는 길을 개척하고, 북방의 오랑캐를 무찔렀다. 그래서 〈衛將軍驃騎列傳〉을 짓는다.”⁴⁾라고 立傳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사마천이 〈태사공

義法淺談), 《중국인문과학》 제6집, 1987년, 22-23쪽 참조.

- 2) 黃震의 《黃氏日鈔》, 王鳴盛의 《十七史商榷》, 蔣丹의 《丹稊文抄》, 史珥의 《四史剿統》, 鍾惺의 《史懷》, 王世貞의 《讀史論辨》, 姚苜田의 《史記精華錄》, 吳見思의 《史記論文》, 曾國藩의 《求闕齋讀書錄》, 錢穆의 《國史大綱》, 張大可의 《史記全本新注》, 王治暉의 《史記榷參》, 劉愚의 《醒予山房文存》, 韓兆琦의 《史記箋證》 등이 있다.
- 3) 金苑, 《史記列傳義法研究》, 國立政治大學博士論文, 1989년 6월, 231-232쪽 참조.
- 4) 《史記·太史公自序》: 直曲塞, 廣河南, 破祁連, 通西國, 靡北胡. 作衛將軍驃騎列傳第五十一.

자서)에서 “의를 행하면서 기개가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하에 공명을 세운 이들에 대하여 70열전을 지었다.”⁵⁾라고 밝히고 있는 70열전의 인물 선정 기준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본 열전에 대한 역대의 논평을 살펴보면 사마천이 《史記》에서 밝히고 있는 입전의도와 동일한 논조⁶⁾도 있지만, 위청과 광거병의 功過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⁷⁾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는 왜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함에서 시작되었다. 사마천이 본 열전을 입전한 명확한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열전의 배치, 열전의 구성 및 인물묘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열전의 배치

본 열전은 시간적으로 한 무제시기에 해당하며, 前後로 〈韓長孺列傳〉, 〈李將軍列傳〉, 〈匈奴列傳〉, 〈平津侯主父列傳〉등 한 무제의 흉노 정벌과 관련 있는 인물들의 열전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의 배열 순서에는 한 무제의 흉노 정벌에 대한 사마천의 미연대이가 반영되어 있다. 瀧川龜太郎은 《사기》 전체의 구조, 즉 ‘五體構造’의 순서가 단순한 배열이 아닌 관련 사건과 인물들이 서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마천의 숨은 뜻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평진후주부열전〉을 고증하면서 “主父偃 등 3인은 모두 상소문을 올려 흉노를 정벌하고 西南夷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여겼다. 사건이 서로 관련 있기 때문에 평진후와 한 傳에 立傳을 하고, 〈위청광거병전〉과 〈南越傳〉·〈東越傳〉 사이에 둔 것을 보면 太史公

5) 《史記·太史公自序》: 扶義倣儻, 不令己失時, 立功名於天下, 作七十列傳.

6) 鍾惺(《史懷》), 王世貞(《讀史論辨》), 錢穆(《國史大綱》), 韓兆琦(《史記箋證》), 張大可(《史記全本新注》) 등이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7) 黃震(《黃氏日鈔》), 王鳴盛(《十七史商榷》), 史珥(《四史劄統》), 姚苻田(《史記精華錄》), 吳見思(《史記論文》), 曾國藩(《求闕齋讀書錄》), 蔣彤(《丹棱文抄》) 등이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의 뜻을 알 수 있다.”⁸⁾고 했다. 〈匈奴列傳〉을 고증하면서 청대 학자 何焯의 말을 인용하며 “〈흉노열전〉 다음 위청, 광거병, 公孫弘이 뒤를 잇고, 또 주보언의 흉노정벌을 간언하는 글을 전부 기록한 것에 태사공의 심오한 뜻이 있다.”⁹⁾고 보았다. 대만 학자 遂耀東 또한 “〈韓長孺列傳〉의 흉노에 대한 和戰의 논의를 흉노 문제의 논의의 시작으로 삼고, 주보언의 흉노정벌을 반대하는 간언을 흉노에 대한 화전의 끝으로 하면 흉노 문제의 처음과 끝을 볼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흉노 문제에 대한 사마천 개인의 견해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열전들 서로간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¹⁰⁾고 하였다. 녹요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마천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살펴 성공과 실패, 흥기와 멸망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한 《사기》의 서사의도와도 부합된다. 한장유는 흉노를 정벌하는 것을 반대했고, 주보언 또한 흉노 정벌을 반대했다. 《평진후주보열전》에서 주보언과 동시에 상소를 올린 徐樂, 嚴安 또한 모두 흉노를 정벌하는 것을 반대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들 네 사람의 ‘上奏’를 실어 흉노문제의 처음과 끝으로 삼았다. 한장유는 “흉노를 치는 것이 불리하므로 화친하느니만 못하다.”¹¹⁾고 한 것에 불과했지만 주보언, 서악, 엄안 세 사람은 상소에서 진나라 멸망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무제에게 간언하였다. 흉노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곧 중국을 피폐하게(靡敝中國) 하고 내부의 붕괴(土崩)로 이어져 결국은 亡秦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¹²⁾ 실제로 흉노와의 전쟁으로 인해 한제국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의 각 방면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사마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8) 《史記會注考證》，卷一百十二：偃等三人，皆以文辭進，皆以伐匈奴通西南夷爲非，其事相涉，此所以平津同傳，觀次諸衛霍兩越諸傳間，可以知史公之意也。1183쪽.

9) 같은 책，卷一百十：何焯曰“下卽繼衛霍，公孫弘，而全錄主父偃諫伐匈奴書，太史之深矣。”1171쪽

10) 遂耀東，〈司馬遷與漢武帝時代〉，(北京：三聯書局，2008年)，196쪽.

11) 《史記·平津侯主父列傳》：“擊之不便，不如和親。”

12) 같은 책，참조.

왕희가 마음에 병사를 매복하는 계략을 꾸미자 흉노는 화친을 끊고 북부의 변경지방을 침략하여 소란을 일으키니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화해할 수가 없었다.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려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전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출정하는 이들은 옷과 먹을 것을 휴대해야 했으며,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물자를 보내야 했다. 중앙과 지방이 전쟁 물자를 공급하려고 백성들을 괴롭히자 백성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범망을 빠져나갔고 정부의 재정은 고갈되어 부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재물을 바치는 자는 관리가 될 수 있었고, 돈을 내는 자는 죄를 면죄 받을 수 있었다.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염치를 몰랐다. 무를 갖춘 사람은 중용되었고 법은 더욱 촘촘해지고 가혹해졌다. 국가의 재정을 위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관리들이 이때부터 생겨났다. (及王恢設謀馬邑, 匈奴絕和親, 侵擾北邊, 兵連而不解, 天下苦其勞, 而干戈日滋. 行者齎, 居者送, 中外騷擾而相奉, 百姓抗弊以巧法, 財賂衰耗而不贍. 入物者補官, 出貨者除罪, 選舉陵遲, 廉恥相冒, 武力進用, 法嚴令具. 興利之臣, 自此始也.)¹³⁾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한나라가 쇠락의 길로 걸어 서게 된 결정적 원인이 바로 흉노에 대한 정벌 전쟁에 있음을 기록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흉노와의 오랜 전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소모되면서 국고는 바닥이 드러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경제는 거의 파산 일보 직전까지 이르러 병사들의 녹봉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¹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매관매직을 조장하고, 흑리를 시켜 백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결국 무제 말년에 이르면 도처에서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당시의 상황은 진말의 시대적 상황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만약에 무제가 말년에 자신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수정을 하지 않았다면 한나라 역시 진나라와 같은 전철을 밟았을 것이다.¹⁵⁾

13) 《史記·平準書》.

14) 같은 책: 戰士頗不得祿焉.

15) 《漢書·西域傳》에 한 무제 자신의 참회록이라 할 수 있는 《輪臺罪己詔》가 실려 있다. 이광리가 흉노와의 전쟁에서 대패한 후, 상홍양이 무제에게 건의한

사마천은 〈흉노열전〉의 논찬에서 무제의 흉노정책에 대해 비판과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세속에 흉노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권세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도록 아첨하는 데만 힘쓰고, 편견에 사로잡혀 저(흉노)와 나(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걱정스럽다. 장수들은 중국의 광대한 영토만 믿고 사기충천했고, 천자는 이들을 믿고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큰 공을 세우지 못했다. 현명한 요임금도 자신의 역량만으로 대업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우임금을 얻고 나서야 구주가 편안해졌다. 성군의 정치를 펼치려고 한다면 오로지 장군이나 재상을 가려서 임명하는 데 있다. 오로지 장군이나 재상을 가려서 임명하는 데 있다!(世俗之言匈奴者, 患其微一時之權, 而務諂納其說, 以便偏指, 不參彼己. 將率席中國廣大, 氣奮, 人主因以決策, 是以建功不深. 堯雖賢, 興事業不成, 得禹而九州寧. 且欲興聖統, 唯在擇任將相哉!)¹⁶⁾

堯임금은禹를 얻어서 九州가 편안해졌지만 무제는 어진 재상과 유능한 장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천하가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이 사마천의 생각이었다. 司馬貞은 이에 대해 “무제가 장수와 재상을 가려 임명하지 못한 것을 풍자한 것이다. 아첨에 힘쓰는 소인배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차례 흉노를 공격하여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그래서 태사공이 우임금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 것을 예로 들어 당대의 잘못을 비난한 것이다.¹⁷⁾”라고 주석을 달았다. 茅坤 또한 “태사공은 무제가 무력을 남용

‘屯鵠戍邊’(둔간수변: 輪臺縣에 병력을 보내 군인들이 땅을 개간하면서 국경을 수비하는 것을 일컬음)을 불허한다는 내용 속에 자신이 즉위 후 실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을 엄금하고 생산력을 장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무제는 한 초기의 통치방침인 ‘無爲而治’로 정책을 선회하여 백성들이 ‘休養生息’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전환으로 당시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16) 《史記·匈奴列傳》.

17) 《史記會注考證》卷一百十: 以刺武帝不能擇任將相, 而務諂納小人浮說, 多伐匈奴, 故壞齊民, 故太史公引禹聖成其太平, 以攻當代之罪. 1171쪽.

하여 흉노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매우 컸지만 감히 깊이 있게 논하지는 못하고 단지 ‘擇將相’에 빚댄 것으로 그 의미가 은미하다.”¹⁸⁾고 했다. 日人, 中井積德 또한 이에 대해 “장수라고 하지 않고 장수와 재상이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훌륭한 장수는 적을 무찔러 공을 세우지만 훌륭한 재상을 두게 되면 무력을 남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마천이 이 뜻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 뜻을 미뤄 짐작해야 한다.”¹⁹⁾고 풀이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흉노열전〉의 논찬에 숨은 본뜻은 요·순이 우의 보좌를 받아 덕으로서 蠻夷들을 교화시켰듯이 무제 또한 요·순을 거울삼아 훌륭한 재상을 임명하여 패도가 아니 왕도로서 흉노를 按撫하고 복속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²⁰⁾ 만약 요·순처럼 왕도정치를 펼치게 되면 변경지역은 李廣처럼 용맹과 지략을 갖춘 훌륭한 장수를 선발하여 지키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사마천의 생각이었다. 〈李將軍列傳〉과 〈위장군표기열전〉을 각각 〈匈奴列傳〉의 앞과 뒤에 둔 것도 바로 사마천의 이런 미연대이가 숨어있다. 이광은 용맹하고 활을 잘 쏘아 흉노가 그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광이 右北平을 지킨다는 소식을 들은 흉노는 그를 ‘飛將軍’이라 부르며, 여러 해 그를 피하면서 감히 우북평을 침입하지 못했다.”²¹⁾ 그러나 무제는 단순하게 변경을 지키고 방

18) 《補標史記評林》 卷之百十: 太史公甚不滿武帝窮兵匈奴事, 特不敢深論, 而托言擇將相, 其旨微矣.

19) 《史記會注考證》 卷一百十: 不特言將, 而稱將相, 何也? 蓋良將能克敵立功, 而賢相不必窮兵黷武, 史遷此意不得明言之, 在讀者逆其志. 1171쪽.

20) 순이 어떻게 유능한 관리를 등용하고 민의를 수용하며 덕을 베풀고, 아첨하는 관리들을 멀리하고 미개한 만이까지 복속시켰는지에 대해서 《史記·五帝本紀》에 잘 드러나 있다. 《사기·오제본기》에 “특히 우의 공이 컸다. 아홉 개의 산을 개간하고, 아홉 개의 호수를 통하게 하고, 아홉 개 강의 물길을 트게 했으며, 전국을 구주로 나누었다. 각 지역의 성격에 따라 토산물을 조공하였으며 조금도 어기지 않았다. 영토는 사망으로 오친 리로 황복(荒服: 흉노가 사는 지역을 황복이라 함)에까지 이르렀다. ……온나라가 모두 순의 공덕을 입게 되었다. (唯禹之功爲大, 披九山, 通九澤, 決九河, 定九州, 各以其職來貢, 不失厥宜. 方五千里, 至于荒服, ……四海之內咸戴帝舜之功.)”고 서술하고 있다.

21) 《史記·李將軍列傳》: 廣居右北平, 匈奴聞之, 號曰‘飛將軍’, 避之數歲, 不敢入

어하는 것에 그치는 않고, 그동안 흉노와의 굴욕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통일왕조의 위엄을 대외에 과시하고 변방의 후환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 무제는 이러한 자신의 야심을 실행에 옮기는데 이 광처럼 능력 있고 병사들로부터 인정받는 백전노장을 제쳐두고, 오직 자신의 명령만을 충실히 따르는 위청, 광거병 등 경험이 일천한 외척 출신의 장수들을 중용했다. 특히 위청의 지위는 그의 누나 衛子夫의 신분의 변화에 따라 점점 지위가 올라 侯에 봉해지고 마침내 大將軍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위청의 조카 광거병 또한 외척의 신분으로 무제의 총애를 받아 흉노와의 전투에서 공을 이뤄 冠軍侯로 봉해졌고, 驃騎將軍이 되어 흉노와 여러 차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이들의 인물됨과 전공에 대해 王盛鳴은 “그 사람이 평범하고 비속하다. 용병으로 승리를 거둔 것은 국력을 총동원하여 성공한 것이지 어찌 정말 모략이 있어서겠는가?”²²⁾라고 비판을 하였다. 왕성명의 비판을 좀 더 부연설명하자면 위청과 광거병이 이룬 공적은 한제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황제가 엄선한 최정예 부대에 의지해 이뤄낸 것으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중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 무제였다. 그래서 吳汝綸은 “흉노열전 다음에 위청, 광거병, 공손홍이 이어지는데 이들은 바로 한 무제가 뽑아 임명한 장수와 재상이다. 이는 바로 무제의 흉노정벌을 풍자한 것이다. 천자의 잘못을 직언으로 비판하지 않고 장수와 재상을 풍자한 것은 이른바 에둘러 비평한 것이다.”²³⁾라고 하였다.

국력을 총동원한 무제의 흉노정벌로 흉노는 멀리 달아나 숨어버렸고, 사막 이남에는 흉노의 왕정이 사라졌다. 그러나 끝내 흉노를 복속시킬 수 없었고, 침입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天漢 2년 이릉이 흉노에 투항하였고,

右北平.

- 22) 王盛鳴, 《十七史商榷》: 其人本庸猥, 用兵制勝, 皆竭民力以成功, 豈真有謀略? 《史記箋證》捌에서 재인용, 5594쪽.
- 23) 吳汝綸評點, 《史記集評》: 此篇後繼以衛青公孫弘二篇, 著漢所擇任之將相也. 此正刺窮邊不斥言天子而刺大臣將相, 所謂微辭. (臺灣: 中華書局, 1970년 5월), 1082쪽.

征和 3년 이광리 역시 흉노에 투항함으로써 한 무제의 대흉노정벌은 유례 없는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 무제 역시 ‘輪臺之詔’에서 국력을 총동원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한장유열전〉, 〈이장군열전〉, 〈흉노열전〉, 〈위장군열전〉, 〈평진후주부열전〉의 배열 순서에 한 무제의 흉노정책과 용인술(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이 숨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열전의 구성

사마천의 열전에는 반드시 그 열전을 관통하는 주제가 존재한다. 본 열전을 구성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天幸’이다.²⁴⁾ 〈위장군표기열전〉은 바로 천행이라는 두 글자를 실마리로 삼아 권력의 성쇠에 따라 인물과 사건을 접맥시키고 있다. 陳仁錫은 열전의 인물과 사건을 이어주는 인과관계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현대소설의 기법인 플롯과 비슷하다. 진인석은 “위청은 외척으로 출세하였다. 태사공은 위청의 일을 서술할 때, ‘子夫가 천자의 사랑을 받았다’, ‘자부가 궁에 들어가 천자의 사랑을 받았다’, ‘자부가 夫人이 되었다’, ‘衛夫人이 황후로 봉해졌다’, ‘단지 황후 때문이다’, ‘대장군이 平陽公主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등과 같은 것이 바로 문장의 血脈이다.”²⁵⁾라고 천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진인석은 천행을 〈위청전〉에만 국한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곽거병전〉 또한 천행을 실마리로 삼아 권력의 성쇠에 따라 인물과 사건을 접맥시키고 있다. 위청이 한 무제에게 중용될 수 있었던 것은 누나 위자부가 천자의 ‘총애(天幸)’를 받았기 때문이다. 위자부에 대한 무제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위청과 그

24) 《補標史記評林》券一百九, 〈李將軍列傳〉: 子長作一傳, 必有一主宰, 如李廣傳以不遇時三字爲主, 衛青傳以天幸二字爲主.

25) 같은 책, 〈衛將軍驃騎列傳〉五十一: 陳仁錫曰“衛青起自外戚, 太史公敘青事, 若姊子夫得幸天子, 若子夫人宮幸上, 若子夫爲夫人, 若衛夫人立爲皇后, 若徒以皇后故, 若大將軍得尚平陽公主, 皆傳中之血脈也.”

의 형제자매의 지위는 올라갔다. 위청은 무제의 정비인 陳皇后와 그녀의 어머니인 長公主의 시기로 감금되어 죽을 뻔 했지만 친구인 公孫傲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무제는 위청을 진황후와 장공주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위청을 건장궁의 관리 책임자인 建章監으로 발탁하였고, 또 그를 侍中으로 삼아 곁에 두었다. 게다가 위자부의 가족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었다. 동생들의 신분을 높여주고 며칠 사이에 천금을 하사하였다. 큰누나 衛孺는 太僕 公孫賀에게 시집을 갔고, 작은누나 衛少兒는 陳平의 증손자인 陳掌과 사통하였는데 무제는 진장을 불러 높은 지위를 내렸다. 평양공주 집안의 일개 歌女 출신인 위자부가 황제의 총애를 받아 미천한 위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권문세족이 되었다. 위자부가 비빈 중에서 품계가 가장 높은 ‘夫人’이 되자 위청은 太中大夫가 된다. 元朔 원년 봄에 위부인이 황자를 출산하고 황후의 자리에 오르자 그 해 가을 위청은 車騎將軍에 임명이 된다. 이를 두고 명대 학자 茅坤은 “무릇 위자부가 총애를 받는 곳에 어김없이 위청이 함께 승승장구하고 있다.”²⁶⁾고 평했다. 이렇듯 위청의 승승장구는 위자부에 대한 무제의 총애와 관련이 있다. 이어서 위청의 전투과정도 서술되고, 전공은 무제의 조서로서 같음되고 있다. 이는 위청뿐만 아니라 광개토태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진인석은 “열전 안에서 천자가 말하는 것이 아홉 번 보이는데 대체로 조서로 두 장군의 무공을 서술하고 있다.”²⁷⁾고 했다. 청대 역사학자 蔣彤은 “이들 두 장군의 무공을 천자가 친히 말했다면 이는 분명 천자의 뜻이다.”²⁸⁾라고 했다. 천자의 뜻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후궁과 처가식구들에게 무제가 아낌없이 특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南宋의 학자 黃震의 논평에서 천자의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유추해볼 수 있다.

26) 《補標史記評林》; 凡衛子夫得幸上, 輒與衛青任處相申而進.

27) 같은 책; 陳仁錫曰“傳內天子曰凡九見, 蓋以詔書叙二將武功也.”

28) 蔣彤, 《丹稜文抄》: 兩將軍之功, 必自天子親言之, 則天子之意也. 楊燕起 등 匯輯, 《史記研究集成·史記集評》 卷六에서 재인용, (北京: 華文出版社, 2005년), 565쪽.

위청은 평양공주의 騎奴 출신으로 정계의 사생아이다. 광거병은 그의 생질이다. 한 무제는 위청의 누나 자부를 황후로 삼았고, 흉노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청을 대장군으로, 광거병을 표기장군으로 삼았다. 공손오는 일찍이 위청을 위험에서 구해주어 벼슬이 장군에 이르렀다. 청의 큰누나는 공손오에게 시집을 갔고, 공손하는 장군이 되었다가 재상에 까지 이르렀다. 나머지 侯가 된 사람들은 두 장군의 친척이 아니면 그 문하 사람들이다. 후일 이사장군 또한 후궁으로 인해 대원을 정벌해서 귀하게 되었다. 무제는 평생을 함부로 전쟁을 일으켜 천하가 시끄러웠는데, 그 까닭을 살펴보면 항상 후궁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衛靑者, 奴隸鄭季之遺孽, 而霍去病其甥也. 漢武帝以靑之姊曰子夫者爲侯, 因生事夷狄而官靑曰大將軍, 霍去病曰驃騎將軍. 公孫敖嘗脫衛靑於難, 亦官之至將軍, 靑之長姊嫁公孫賀, 賀爲將軍, 且至宰相. 其餘侯者, 非兩將軍親戚, 則其門下人也. 他日貳師將軍亦以後宮故, 生事大宛而使之貴. 帝平生窮兵黷武, 四海內蕭然, 觀其所由, 往往爲榮宮妾地耳.)²⁹⁾

황진의 설명처럼 무제는 총애하는 후궁이 있을 때마다 총애하는 후궁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매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갓집의 처남 처제들이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조서로서 그들의 공을 부풀렸다. 이는 위청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 元朔 원년 흉노와의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위청과 그의 휘하 교위들은 후에 봉해졌고, 봉읍을 더하였다. 원삭 5년의 전투에서 전공을 세우자 무제는 위청을 대장군으로 삼고, 위청의 세 아들까지 侯에 봉하였다. 그러자 위청은 “소신은 폐하의 총애로 장군이 되었고, 폐하의 신령하심에 힘입어 아군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이것은 모두 여러 교위들이 힘껏 싸운 공입니다.”³⁰⁾라고 이 모든 것이 무제의 배려로 이뤄진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청은 甯乘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원삭 6년, 흉노와의 전투에서 휘하 장수 소견이 대패하고, 전장군 조신이 흉노에 투항하였다. 전쟁에서

29) 《黃氏日鈔》. 韓兆琦編著, 《史記箋證》捌에서 재인용, 5594쪽.

30) 《史記·衛將軍驃騎列傳》: 臣幸得待罪行間, 賴陛下神靈, 軍大捷, 皆諸校尉力戰之功也.

대패하고 돌아온 위청에게 무제는 천금을 하사하였다. 이 무렵 왕부인이 천자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영승이라는 자가 “장군께서 공이 아직 많지 않은데, 만 호의 식읍을 받고 세 아들 모두 후에 봉해진 까닭은 오직 황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제 왕부인이 총애를 받고 있지만 그 일족은 부귀하지 못합니다. 장군께서 하사받은 천금을 왕부인 부모의 생일을 축하하는데 드리십시오.”³¹⁾라고 위청을 설득하였다. 위청은 그의 말을 받아들여 오백금을 축수금으로 내놓았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무제는 영승을 東海郡의 都尉로 삼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위청이 영승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왕부인의 생일에 축수금을 내놓은 것이고, 무제는 영승을 도위로 임명함으로써 ‘영승의 말이 곧 짐의 뜻이다’라는 자신의 속마음을 위청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위청이 외척으로 천자의 비호 하에 승승장구하며 권력의 최 정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은 성하면 쇠하기 마련이듯이’³²⁾ 식을 줄 모르던 위청에 대한 황제의 총애와 신임도 원삭 6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원삭 6년, 위청의 부하 蘇建이 전투에서 대패해 전군이 거의 전멸하였고, 前將軍 趙信은 흉노에 투항했다. 사마천은 바로 이를 기점으로 떠오르는 신예 광거병을 등장시키고 있다. 吳齊賢은 두 인물의 접맥에 대해 “본 열전은 두 사람의 합전인데, 광거병을 끼워 넣으면서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새로운 필법이다.”³³⁾라고 평했고, 진인석은 “누나의 아들이라는 핵심어로 위청과 광거병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³⁴⁾고 평했다. 오제현과 진인석이 지적하고 있듯이 사마천은 위청을 날줄로 삼고, 광거병을 씨줄로 삼아 두

31) 같은 책: 將軍所以功未甚多, 身食萬戶, 三子皆爲侯者, 徒以皇后故也. 今王夫人幸而宗族未富貴, 願將軍奉所賜千金爲王夫人親壽.

32) 《史記·平準書》: 物盛而衰. 사마천은 역사의 기록(史記)을 통해 왕조의 흥망 성쇠뿐만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 영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고찰하고 있다.

33) 《補標史記評林》 券一百十一: 此兩人合傳也, 插入霍去病無痕, 別一種筆法.

34) 같은 책: 陳仁錫曰“以姊子字, 聯絡衛霍兩人, 過接無迹.” 4쪽.

인물을 자연스럽게 접맥시키고 있다. 즉, 권력의 최 정점에서 하향곡선을 그리는 위청과 새로이 급부상하는 신에 곱거병을 자연스럽게 교차시키면서 서술하고 있다. 元狩 4년 위청과 곱거병 두 명이 동시에 각각 5만의 기병으로 흉노 정벌에 나섰다. 한의 병사 중 가장 용감한 정예 병사들은 모두 표기장군 밑에 소속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표기장군은 애초에 定襄에서 출격하여 선우와 맞설 생각이었으나, 흉노의 포로가 선우가 동쪽으로 갔다고 하자 무제는 표기장군을 代郡에서 진격하도록 하고 대장군을 정양에서 출격하도록 바꾸었다. 이는 전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표기장군에게 주겠다는 한 무제의 노골적인 작전변경이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위청이 비록 선우를 사로잡지는 못했지만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사마천은 흉노와의 전투과정과 위청의 활약상을 앞서 천자의 조서로 같음했던 것과는 달리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반면 곱거병의 전공에 대해 표기장군은 “대군·우북평군에서 천여 리를 진격하여 흉노의 좌익의 군사와 대결하였는데, 적을 참수하거나 포로로 잡은 공은 이미 대장군보다 컸다.”³⁵⁾라고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어서 천자의 조서로 전공을 같음하고 있다. 그러나 천자의 조서에 대장군 위청과 휘하 장수들의 전공은 일절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어서 사마천은 한 무제가 “대사마의 관위를 증설하여 대장군과 표기장군을 모두 대사마로 삼고, 또한 법으로 표기장군의 관위와 봉록을 대장군과 같게 했다.”³⁶⁾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서술 방식에 대해 茅坤, 鄧以讚, 吳齊賢³⁷⁾ 등은 미연대의가 들어간 《춘추》의 필법으로 사마천이 개탄했다고 평했다. 그렇다면 무제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 노골적으로 곱거병을 편애하고 위청을 따돌리게 되었을까? 무제와 위청은 처남 매부 사이였으며 군신관계이기도 했다. 누나는 황후, 아내는 공주, 조카는 태자, 본인은 대장군으로 황제를 제외하고 그의 지위는 어느 누구와도 견

35) 《史記·衛將軍驃騎列傳》: 出代右北平千餘里, 直左方兵, 所斬捕功已多大將軍.

36) 같은 책: 乃益置大司馬位, 大將軍驃騎將軍皆爲大司馬. 定令, 令驃騎將軍秩祿與大將軍等.

37) 《補標史記評林》 卷一百十一, 〈衛將軍驃騎列傳〉五十一, 8-9쪽.

줄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한나라 권력의 최고 실세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 권력은 어느 누구와도 나뉘기질 수가 없다. 특히 봉건왕조의 절대 군주라면 자신의 권력과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세력을 항상 경계하고, 매의 눈으로 감시하기 마련이다. 비록 위청이 항상 겸양과 은인 자중으로 처세했지만, 그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무제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새로운 인재를 키워 위청을 견제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사적 재능과 포부가 당찬 광거병을 전면에 배치시킴으로써 그가 야심차게 진행한 흉노 정벌을 성공시키려 했고, 또 한편으로 지나치게 커진 대장군의 세를 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마치 무제가 의도하거나 한 것처럼 특히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관료 사회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사마천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大司馬의 관위를 증설하여 대장군과 표기장군을 모두 대사마로 삼았다. 또한 법으로 표기장군의 관위와 봉록을 대장군과 같게 했다. 이 이후로 대장군 위청의 권위는 날로 쇠퇴해지고, 표기장군은 날로 존귀해졌다. 대장군의 옛 친구들과 문하 사람들 가운데 대장군을 떠나 표기장군을 섬기다가 벼슬과 지위를 얻은 자가 많았다.(乃益置大司馬位, 大將軍驃騎將軍皆爲大司馬. 定令, 令驃騎將軍秩祿與大將軍等. 自是之後, 大將軍青日退, 而驃騎日益貴. 舉大將軍故人門下多去事驃騎, 輒得官爵.)³⁸⁾

사마천은 권력과 이익이 있는 곳에 이합집산을 일삼는 세상 사람들의 염량세태를 통해 대장군 위청의 失勢와 표기장군 광거병의 得勢를 가늠하는 지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勢利를 쫓는 인물들에 대한 비판까지 곁들이고 있다. 물론 이들의 득세와 실세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천자의 천행이다. 사마천은 바로 이 천행을 실마리로 삼아 인물과 이야기를 접맥시키고 있다. 두 인물의 合傳 말미에 “대장군이 평양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長平侯 衛伉(위청의 맏아들)이 대신해서 侯가 되었지만, 그로부터 6

38) 《史記·衛將軍驃騎列傳》.

년 뒤에 법에 저촉되어 후의 지위를 잃었다.”³⁹⁾라고 본 열전의 방점을 찍음으로써 외척 신분의 위청과 광거병이 어떻게 천자의 총애를 받아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IV. 인물묘사

《위장군표기열전》은 흉노전쟁에 敍事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기》 특유의 스토리성이나 인물묘사가 상대적으로 다른 편에 비해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의 붓끝을 통해 전주들과 전주 주변인물이 생동감이 있고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마천은 위청이 감천궁에서 목에 칼을 차고 형을 받고 있는 죄수를 만나 나눈 대화에서 위청의 숙명론적인 인생관과 겸양, 은인자중이 그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넉넉히 보여주고 있다.

위청은 일찍이 어떤 사람을 따라 감천궁 안의 감옥에 간 일이 있는데, 목에 칼을 찬 죄수 한 명이 위청의 관상을 보더니 “귀인의 상이로세. 벼슬로 侯에 이르게 될 것일세.” 위청이 웃으며 말했다. “남의 집 종으로 태어나 매나 맞지 않고 욕이나 안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찌 侯로 봉해지길 바라겠습니까!” (青嘗從入至甘泉居室, 有一鉗徒相青曰“貴人也. 官至封侯.” 青笑曰“人奴之生, 得毋笞罵即足矣, 安得封侯事乎!”)⁴⁰⁾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이 되고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이다. 위청의 숙명론적 인생관과 겸손하고 은인자중하는 성격도 어린 시절 비천하고 불우했던 그의 가정사와 연관성이 있다. 위청은 사생아였다. 그의 아버지 정계가 평양후의 집에 과견돼 일을 하던 중

39) 《史記·衛將軍驃騎列傳》: 大將軍以其得尚平陽長公主故, 長平侯伉代侯. 六歲, 坐法失侯.

40) 《史記·衛將軍驃騎列傳》.

노비 위은과 사통하여 낳은 아들이 위청은 소년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졌다. 찾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양치는 일을 시켰고, 본처와 그의 자식들은 모두 그를 종으로 취급하였다. 부당한 대우에도 마치 숙명인양 받아들이며 양보하고 은인자중하는 신중한 성격은 바로 이런 가정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거슬리지 않게 행동하고, 매 맞지 않고 욕먹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본능적으로 배우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상을 볼 줄 아는 죄수로부터 “벼슬이 후에 이르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크게 놀라거나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게 웃으면서 “남의 집 종으로 태어나 매나 맞지 않고 욕이나 안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찌 후로 봉해지길 바라겠습니까.”라고 태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신분이 미천한 그에게 매 맞지 않고 치욕을 당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생존조건이었기 때문에 공을 세워 후에 봉해지는 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그에게 누나 위자부가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된 사건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위자부에 대한 무제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그의 지위 또한 비례해서 올라갔다. 사생아로 태어나 평양공주 집에서 驍奴로 있던 그가 하루아침에 황제의 처남, 황후의 동생, 태자의 외삼촌으로 신분이 격상되었고, 그리고 한나라 권력의 제 2인자가 되었다. 남의 집 종으로 태어나 매나 맞지 않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만족스럽다던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위세를 믿고 오만했다거나 자신의 권력에 심취하지는 않았다. 누나가 황제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하던 위청은 대장군이 된 후에도 분에 넘치는 황은에 몸 둘 바를 몰랐다. 원삭 5년, 위청의 군대가 흉노의 우현왕을 격파하자 무제는 강보에 쌓인 위청의 세 아들까지 후에 봉하였다. 그러자 위청은 이를 극구 사양하고 전공을 황제와 여러 휘하 장수들의 공으로 돌렸다.

소신은 폐하의 총애로 장군으로 임명되었으며 폐하의 신령하심에 힘입어 아군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교위들이 힘써 싸운 공로

였습니다. 폐하의 총애로 신에게 봉읍을 늘려주셨고, 강보에 쌓여 아무런 공로도 세우지 못한 신의 자식들에게도 폐하의 총애로 땅을 나누어 열후에 봉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이 대장으로 임명되어 병사들에게 힘껏 싸우기를 권장하였던 본의가 아니옵니다. 항을 비롯한 세 아들이 어찌 감히 봉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臣幸得待罪行閒, 賴陛下神靈, 軍大捷, 皆諸校尉力戰之功也. 陛下幸已益封臣青. 臣青子在襁褓中, 未有勤勞, 上幸列地封爲三侯, 非臣待罪行閒所以勸士力戰之意也. 伉等三人何敢受封!)⁴¹⁾

이는 위청의 겸양과 공손함에 대한 사마천의 긍정적인 묘사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겸양과 공손함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절대 권력 아래에서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아침을 일삼는 소인배나 간신이 되기 십상이다. 원삭 6년 정양의 전투에서 부하 소건이 대패해 전군이 거의 전멸하고, 혼자 살아 돌아오자 위청은 자신이 총애를 받고 감히 월권을 하지 않음을 보여 주기 위해 소건을 황제가 있는 행재소로 보냈다. 이런 그의 행동은 황제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사마천은 위청의 성품과 세상의 평가에 대해 “대장군의 사람됨은 인자하고 선량하고 겸손하였으며 부드러운 성품으로 황제의 환심을 샀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다.”⁴²⁾고 폄하하고 있다. 누나 위자부와의 관계로 승승장구하던 위청에게 원삭 6년 전투에서의 패배는 대장군 위청의 위상에 큰 타격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무렵 황후 위자부가 총애를 잃고 왕부인이 새로이 황제의 총애를 얻고 있을 때였다. 또 무제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신예 광거병을 중용하기 시작하면서 위청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던 시점이기도 하였다. 이런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위청은 황제가 내린 하사금 1,000금 중 절반을 영승의 건의에 따라 왕부인 부모의 축수금으로 내놓았다. 사마천은 “천자가 나중에 이 사실을 듣고 대장군에게 묻게 되었는데 대장군이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천자는 영승을 동해의 도위로 제수했다”⁴³⁾라는 한

41) 《史記·衛將軍驃騎列傳》.

42) 같은 책: 大將軍爲人仁善退讓, 以和柔自媚於上, 然天下未有稱也.

줄의 서술로 전제군주의 비정하고 냉혹한 일면을 포핍하고 있다. 이후 무제는 노골적으로 광거병을 편애하고 위청을 따돌리기 시작한다. 원수 4년 봄의 전투에서 무제의 이러한 태도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모든 작전은 광거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전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 또한 광거병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서 위청은 비록 선우를 사로잡지는 못했지만 혁혁한 전공을 올렸다. 그러나 무제의 논공행상은 광거병과 그의 휘하 장수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마침내 원수 4년 위청과 광거병이 동시에 대사마가 되었지만 황제의 총애는 이미 위청에게서 광거병에게로 완전히 옮겨간 때였다. “이때부터 위청의 위세는 날로 쇠퇴해갔고, 반대로 광거병의 지위는 더욱 고귀해졌다. 그러자 평소 대장군을 따르던 빈객들은 세리를 쫓아 표기장군에게 몰려들었다.”⁴⁴⁾고 짙막하게 서술할 뿐 위청이 무제의 따돌림이나 세상의 염량세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불만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기술을 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누구나 불공정한 대우에 분노하고, 각박한 세상인심을 원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위장군표기열전》 및 본 열전과 관련된 다른 열전 어디에도 위청의 불만과 원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황후와 태자를 생각해 은인자중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청의 성격적 특성상 불평불만을 밖으로 드러낼 리도 없고, 후자 또한 충분한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그가 황제에게 불평불만이나 원망을 갖고 있고 또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향후 황후와 태자의 지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괘시와 꾀박 속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성장한 그에게 이런 상황이 낫설지가 않았을

43) 《史記·衛將軍驃騎列傳》: 天子聞之, 問大將軍, 大將軍以實言, 上乃拜甯乘爲東海都尉.

44) 같은 책: 自是之後, 大將軍青日退, 而驃騎日益貴, 舉大將軍故人門下多去事驃騎.

것이다. 그리고 미천한 신분으로 살아갈 때 그의 희망사항이 남의 집 종으로 태어나 매나 맞지 않고 육이나 안 먹으면 만족했던 것처럼, 대장군의 지위와 황제의 처남, 태자의 외삼촌으로서의 자리가 그에게 이미 과분한 사치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때론 한 마디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일생을 보여주기도 한다. 마치 사마천은 열전의 도입부에서 관상쟁이와 나눈 대화를 통해 위청의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위청이 친부의 집에서 온갖 구박과 학대를 받고 성장한 ‘흙수저’라면, 광거병은 비록 출생은 떳떳하지 못했지만⁴⁵⁾ 귀족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한 ‘금수저’나 다름없다. 사마천은 그의 순탄한 인생에 대해 “열여덟 살에 총애를 얻어 천자의 시중이 되었다.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다. 두 차례 대장군을 따라 출정하였다.”⁴⁶⁾라고 서술하고 있다. 두 사람의 성격도 서로 판이하게 달랐다. 위청이 신중하고 겸손하며 유순한 성격이라면, 광거병은 말보다는 행동이 빠르고 항상 자신감 있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었다. 아마도 성장환경이 그들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 진다. 사마천의 위청의 이런 성격에 대해 “과묵하고 들은 말은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고, 기개가 있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과감했다.”⁴⁷⁾라고 개괄적인 방식으로 그의 성격을 묘사하고 이어서 그의 성격됨을 짐작할 수 있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천자가 일찍이 그에게 손자와 오기의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표기장군은 “방략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옛날의 방법을 배울 것까지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천자가 그를 위해 저택을 짓고 그에게 가보라고 했더니, 그는 “흉노를 아직 멀하지 못했는데 어

45) 《史記·衛將軍驃騎列傳》에는 광거병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없고, 《漢書·衛青霍去病傳》에 “그의 아버지가 광중유가 소아와 사통하여 거병을 낳았다.(其父霍仲孺先與少兒通, 生去病.)”라고 하는 대목이 있다.

46) 《史記·衛將軍驃騎列傳》: 大將軍姊子霍去病年十八, 幸爲天子侍中. 善騎射, 再從大將軍.

47) 《史記·衛將軍驃騎列傳》: 驃騎將軍爲人少言不泄, 有氣敢任.

찌 집을 가질 생각을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천자가 그를 더욱 아끼고 중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젊은 나이에 시중이 되었고 존귀해졌기 때문에 병사들을 돌볼 줄 몰랐다. 그가 출병할 때면 천자가 그를 위해 태관을 시켜 수십 대 수레분의 식품을 보내주었는데, 돌아온 뒤에 물품 수레에는 양식과 고기가 남겨질 정도였지만 병사들 중에는 굶주린 자가 많았다. 그가 변경 밖에 있을 때, 병사들은 식량이 부족하였다. 어떤 병사는 일어나 움직일 수가 없는 지경이었지만, 표기장군은 오히려 땅에 줄을 그어 구역을 정해놓고 공차기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았다.(天子嘗欲教之孫吳兵法, 對曰顧方略何如耳, 不至學古兵法, 天子爲治第, 令驃騎視之, 對曰“匈奴未滅, 無以家爲也.” 由此上益重愛之. 然少而侍中, 貴不省土. 其從軍, 天子爲遣太官齋數十乘, 既還, 重車餘棄梁肉, 而士有飢者. 其在塞外, 卒乏糧, 或不能自振, 而驃騎尚穿域蹋鞠. 事多此類.)⁴⁸⁾

천자를 지근에서 모시는 시중으로 과묵하고 들은 말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장점이다. 또 무제와 나눈 대화를 통해 젊은 청년의 패기와 기개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약간만 주의해서 대화를 살펴보면 광거병의 패기와 기개는 젊은 청년의 치기와 다름없고 장수로서의 지략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특히 그의 치기와 호기어린 말투는 흡사 실패한 영웅 항우를 떠올리게 한다.⁴⁹⁾ 즉 광거병은 勇將으로서의 자격을 갖췄을지는 모르나 智將으로서나 德將으로서 자질은 부족해 보인다. 병사들의 배고픔은 관심 밖이고 말과 행동은 오로지 천자의 환심을 사는데 있었다. 사마천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전 안의 인물의 비교와 대비를 통해서도 인물을 묘사하지만 바로 이웃하는 전의 전주와의 비교나 대비, 혹은 상관성이 있는 열전의 인물과의 비교와 대비를 통해서도 인물을 성공적으로 묘사하고 동시에 포괄의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특히 <이장군열전>에서 이광이 부하들을 어떻게 통솔하고 대하는지를 비교하면 확연히 그 우열이 드러난다.⁵⁰⁾ 그러나 병사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재만으로도 흉노에게 두려

48) 같은 책.

49) 《史記·項羽本紀》 참조.

50) 사마천은 《史記·李將軍列傳》에서 덕장으로서 이광의 면모에 대해 “이광은

움의 대상이었던 비장군 이광은 무제로부터 늙고 운이 좋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흉노와의 전투에서 따돌림을 받았고, 결국 자결로 생을 마감하였다. 반면에 무제는 부드러움으로 황제의 비위를 잘 맞추는 위청과 패기와 기개가 넘치는 광거병을 중용하였다. 특히 광거병의 치기어린 패기와 기개를 높이 샀고 그를 더욱 아끼고 중용하였다. 광거병의 이런 성격적 특징은 전투에서도 고스란히 잘 드러난다. 그의 전투스타일은 늘 과감하고 신속했다. 원삭 6년의 열여덟 살의 나이로 포요교위의 신분으로 전투에 참가해 날쌔고 용감한 800여기의 기병을 이끌고 본대에서 수백 리나 떨어져 나와 적진에 뛰어들어 예상 밖의 큰 전과를 올렸다. 적이 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시에 습격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전과를 거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무모한 기습작전이었다. 광거병의 전투방식은 항상 이와 같았다. 사마천은 이에 대해 무엇보다 천운이 따랐다고 평가절하 했다. 그러자 무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즉시 冠軍侯에 봉했다. 관군후는 최고의 공을 세운 용사에 대한 표창이었다. 어찌 보면 무제는 위청의 겸손하고 유순한 일면보다는 광거병의 패기와 기개 과감성을 높이 샀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오히려 장수로서의 자질에 부합된다고 보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훌륭한 장수가 가져야 할 자질과 덕목이 정말 패기와 기개뿐일까? 사마천은 이에 대해 본 열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기》의 곳곳에서 고금의 명장들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위장군표기열전〉을 〈司馬穰苴列傳〉·〈孫子吳起列傳〉·〈廉頗藺相如列傳〉·〈絳侯周勃世家〉와 대조하면서 읽어보면 곳곳에서 고금의 명장들과 비교가 되고 자연스레 우열이 드러나며 포평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청렴하여 상을 받으면 항상 그의 부하들에게 나눠 주었고, 음식은 군사들과 함께 먹었다. ……이광이 병사를 인솔할 때, 식량과 식수가 부족한 곳에서 물을 보아도 병사들이 물을 다 마시기 전에는 물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병사들이 밥을 다 먹기 전에는 한 입도 먹지 않았다. 관대하고 가혹하지 않아 병사들이 그의 지휘를 받는 것을 좋아했다. (廣廉, 得賞賜輒分其麾下, 飲食與士共之. ……廣之將兵, 乏絕之處, 見水, 士卒不盡飲, 廣不近水, 士卒不盡食, 廣不嘗食. 寬緩不苛, 士以此愛樂爲用.)” 라고 묘사하고 있다.

V. 나오는 말

본 논문에서 열전의 배치, 열전의 구성 및 인물묘사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입전인물의 자질부족과, 무제의 잘못된 인사정책(용인술)에 대한 포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열전과 관련된 여타 열전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한의 건국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오던 흉노와의 화친 정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흉노와 전면전을 수행한 한 무제의 대외 정벌에 대한 사마천의 비판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 무제의 흉노 정벌은 단순한 정벌 전쟁이 아니었다. 무제가 흉노를 정벌하려고 한 진짜 목적은 漢高祖와 呂后의 치욕을 씻고 그동안의 굴욕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다.⁵¹⁾ 무제는 과거의 사적인 원한 관계를 해결하는 한편 통일왕조의 위엄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해⁵²⁾ 재위 기간 54년 중 무려 44동안 흉노 및 주

51) 한 무제가 왜 흉노 정벌에 집착하고 있는지 《史記·匈奴列傳》에서 무제가 大宛을 정벌하고 남긴 조서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무제는 “고조 황제께서 짐에게 평성에서의 원한을 남겼고, 또 고후 때에는 선우가 매우 패역무도한 서신을 보냈다. 옛날 제나라 양공은 9대조의 원수를 갚았는데 춘추에서 이를 크게 칭찬했다. (高祖皇帝遺平城之憂, 高后時單于書絕悖逆, 昔齊襄公復九世之讎, 《春秋》大之.)”고 언급하고 있다. 무제가 흉노를 정벌하려고 한 진짜 목적은 고조가 白登山에서 흉노에게 포위되어 겪은 치욕을 씻고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 조서에서 언급한 “제양공이 9대조의 원수를 갚았는데 《춘추》에서 이를 크게 칭찬했다.”고 한 것에 대해 顏師古는 “장공 4년 봄에 제나라 양공이 기를 멸망시킨 거은 복수를 한 것이다. 양공의 9대조가 일찍이 기후에게 속아 주나라에게 평형에 처해 죽었기 때문에 양공이 기나라를 멸망시켰다. 9대조의 일인데도 복수를 할 수 있는가? (莊公四年春, 齊襄公滅紀, 復讎也, 齊襄公九世祖昔爲紀侯所讎, 而烹殺於周, 故襄公滅紀也, 九世祖猶可以復讎乎?)” “비록 백대의 일이라도 복수가 가능하다. (曰雖百世可也.)”고 풀이했다. 제나라 양공은 9대조 할아버지의 원수까지도 갚았다. 그렇다면 4대조 할아버지 고조가 백등산에서 흉노에게 포위되어 겪은 치욕과 고조, 할머니 여태후가 겪은 수모를 증손자인 한 무제가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무제는 흉노와 전쟁할 이론적 근거를 공양 《춘추》에서 찾았다.

52) 《史記·建元以來侯者年表》: 中國一統, 明天子在上, 兼文武, 席卷四海, 內輯億萬之衆, 豈以晏然不爲邊境征伐哉!

변민족에 대한 침략 전쟁을 벌였다. 사마천은 한 무제의 무리한 대외확장 정책과 왕도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한 패도정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특히 흉노와의 전쟁은 한제국의 흥망성쇠의 중요한 변곡점이었고 한제국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 정도로 실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앞서 본문에서 언급했으므로 더 이상 부연하지 않겠다. 사마천은 <태사공자서>에서 “왕업이 일어난 처음과 끝을 찾아 고찰하였으며 그 융성하던 시대도 보고 그 쇠망한 원인도 관찰하였다.”⁵³⁾고 ‘일가지언’의 저술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의 일가지언의 요체는 <오제본기>에서 <금상본기>까지 왕조의 흥망성쇠를 통해 국가를 경영하는 군주에게는 치국의 방략을 역사의 개체이며 주체인 개개인들에게는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의 역사서술은 기존의 역사서술과는 달리 왕후장상만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모든 사회 계층이 역사서술의 대상이 된 것이다. 사마천은 또 <태사공자서>에서 아버지 사마담의 유훈을 인용하며 “공자가 편찬한 《춘추》를 계승하는 것이 저술의 목적이다.”⁵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마천의 《사기》가 《춘추》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면 사마천은 당대의 천자와 당시대의 인물(위청·곽거병)과 사건(흉노정벌)에 대해서 무척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흉노에 투항한 이릉을 변호하다 궁형을 받게 된 사마천이 흉노와의 전쟁에 선봉에 섰던 두 인물을 입전하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이런 문제를 간과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만 읽게 된다면 자칫 일부 학자들 처럼 사마천이 드러내고자 한 일가지언의 겉뜻만 읽고 속뜻을 놓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사마천 또한 <五帝本紀>의 논찬에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마음속으로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면, 견문이 좁고 낮은 사람에게 말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⁵⁵⁾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53) 《史記·太史公自序》: 網羅天下放失舊聞, 王跡所興, 原始察終, 見盛觀衰.

54) 같은 책: 太史公曰“先人有言自周公卒五百歲而有孔子, 孔子卒後至今五百歲, 有能紹明世, 正《易傳》, 繼《春秋》, 本《詩》·《書》·《禮》·《樂》之際, 意在斯乎!, 意在斯乎! 小子何敢讓焉.”

문장의 행간에 숨겨진 사마천의 고심과 미연대의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야말로 《사기》를 제대로 읽어내는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사마천의 이
런 고심과 미연대의가 《사기》의 전체구조, 즉 오체구조에서 열전의 배
치, 열전 속의 문장구성 및 인물묘사 곳곳에 함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ferences>

1. Baihuashiji editing commission. *Baihuashiji*. Taipei: Lianjing Press, 1986.
 2. (Han)Ban Gu. *Hanshu*. Taipei: Dingwen Press, 1970.
 3. Cheng Jinzao. *Shijiguankui*. Xi'an: Shanxi Renmin Press, 1982.
 4. Fan Wenfang. *Sima-qian's Creative mind and Writing Technic*. Taipei: Wenshizhe Press, 1987.
 5. Han Zhaoqi. *Evaluation on Shiji*. Xi'an: Shanxi People Education Press, 2000.
 6. Han Zhaoqi. *Shijijianzheng*. Nanchang: Jiangxi People Education Press, 2005.
 7. Han zhaoqi. *Shijixindu*. Beijing: Yanshan Press. 2007.
 8. Jeong, Beomjin. *Shiji*. Seoul: Magpie Press. 1996.
 9. Jin Yuan. *A Study on Shijiliezhuanyifa*.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Doctor's Thesis in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1989.
 10. Kim, Lee Sik. *A Study on Shijijiqizhuanjiwenxuezhijianjiu*.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2005.
 11. Kim, Weonjung trans. *Shijiliezhuang*. Seoul: Eulyu Publishing. 2002.
 12. Kim, Yeongsu. *Sima-qian, the Beacon of History: Shiji Written in*
-
- 55) 《史記·五帝本紀》：非好學深思，心知其意，固難爲淺見寡聞道也。

- Blood*. Seoul: Changhae Press, 2006.
13. Kim, Seong-il. "A Study on the Meaning of Prais and Censure about Shiji". *Chinese Cultural Science* vol.6, (1987).
 14. Lee, Yinho trans. *General Education Class on Shiji*. Pazu: Dolbagae Press, 2009.
 15. Leng Zhilong(jixiao), Li Guangjin(zengbu), Ariyi Norihira(bubiao). *Bubiaoshijipinglin*. Taipei: Lantai Press, 1968.
 16. Lu Yaodong. *Aggrievement and Transcend—Sima-qian and Hanwudi Dynasty*. Taipei: Sanlian Press, 2008.
 17. (Han)Sima Qian. *Shiji*. Taipei: Dingwen Press, 1970.
 18. Takigawa Kametalo. *Shijihuizhukaozheng*. Taipei: Wenshizhe Press, 1993.
 19. Wang Liqun. *Hanwudi Review Based on Shiji*. Wuhan: Changjiang wenyi Press, 2007.
 20. (Liang)Xiao Tong(edition), (Tang)Li shan(annotation). *Wenxuan*. Taipei: wunan Press, 1991.
 21. (Qing)Yao Ningtian. *Shijijinghualu*. Taipei: Wenjin press, 1995.
Zhangdake. *Shijixinzheng*. Beijing: Huawen Press. 2000.

< 참고문헌 >

1. 白話史記編輯委員會, 《白話史記》, 台北: 聯經出版社, 1986.
2. (漢)班固, 《漢書》, 台北: 鼎文出版社, 1970.
3. 程金造, 《史記管窺》,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2.
4. 丁範鎮의 옮김, 《史記》, 서울: 까치, 1996.
5. 范文芳, 《司馬遷的創作意識與寫作技巧》, 台北: 文史哲, 1987.
6. 韓兆琦, 《史記題評》, 西安: 陝西人民教育出版社, 2000.

7. 韓兆琦編著,《史記箋證》,南昌:江西人民出版社,2005.
8. 韓兆琦,《史記新讀》,北京:燕山出版社,2007.
9. 金苑,《史記列傳義法研究》,臺灣政治大中文研究所 博士論文,1989.
10. 金利湜,《史記及其傳記文學之研究》,臺灣國立師範大學 國文研究所 博士論文,2005.
11. 김원중 옮김,《사기열전》,서울:을유문화사,2002.
12. 김영수,《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 쓴 사기》,서울:창해,2006.
13. 金聖日,〈史記褒貶義法淺談〉,《중국인문과학》 제6집,1987.
14. 한자오치 지음·이인호 옮김 《사기교양강의》,과주:돌베개,2009.
15. (明)凌稚隆 輯校, (明)李光縉 增補, (日)有井範平 補標,《史記評林》,台北:蘭臺書局,1968.
16. 遂耀東,《抑鬱與超越》-司馬遷與漢武帝時代,台北:三聯書局,2008.
17. (漢)司馬遷,《史記》,台北:鼎文出版社,1970.
18. 瀧川龜太郎,《史記會注考證》,台北:文史哲,1993.
19. 王立群,《讀史記之漢武帝》,武漢:長江文藝出版社,2007.
20. (梁)蕭統 編, (唐)李善 注,《文選》,台北:五南出版社,1991.
21. (清)姚苧田 節評,《史記菁華錄》,台北:文津出版社,1995.

< Abstract >

This article is a study on *Weijiangjunpiaojiezhuan in Shiji*. Weiqing and Huoqubing were generals from maternal relatives in Hanwudi Dynasty, who expanded Han's territory and ousted the Huns. Sima-qian said that he wrote *Weijiangjunpiaojiezhuan* in honor of their achievements. But contemporary reviews show that more negative aspects about Weiqing and Huoqubing have been found. This paper starts from the question that why there has been a gap between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To analyze Sima-qian's intention to write the *Weijiangjunpiaoqiliezhuane*, I studied the structure, plot, and character descriptions. As a result, I discovered that Sima-qian criticized the characters' lack in qualities and Hanwudi's wrong personnel policy. And he also criticized Hanwudi's foreign policy: he unilaterally destroyed the peace treaty and waged the war with the Huns.

Key Words : 司馬遷(*Shima Qian*), 《史記·衛將軍驃騎列傳》(*Weijiangjun-piaoqiliezhuane in Shiji*), 太史公(*Taishigong*), 史記(*Shiji*), 衛青(*Weiqing*), 霍去病(*Huoqubing*)

